

날카로운 질문도 적극 답변… MZ세대 위한 체험존도 마련

삼성전자 제54기 주주총회 개최

매출 300조 돌파, 2년연속 신기록
한중회 부회장 “주주들에게 감사”
지속가능ESG경영 위해 소통 강화
주총장 곳곳 포토존·체험공간 설치

삼성전자가 주주들과 축제를 열었다. 질문과 조언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겠다는 ESG 경영 의지도 분명히 보였다.

삼성전자는 1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의장인 한중회 부회장이 진행을 맡아 주요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설명하고, 제무재표 승인과 한중회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질의응답에도 적극

한중회 대표이사 부회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격



삼성전자 주주총회 행사장에 마련된 에코프렌즈 팝업 스토어

려에 힘입어 처음으로 매출 300조원을 넘어이며 2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며 임직원과 협력사, 주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 부회장은 이어 삼성전자가 전략적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준비하고 업계 리더십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 지난해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인터브랜드 평가 기준 877억 달러로 3년 연속 글로벌 5위를 차지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아울러 혁신 기술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들의 지속가능한 일상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발표한 친환경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도전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겠다고 강

조했다. 지난해 기준 연간 9조8000억원 배당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 부회장은 위기 극복 비결을 ‘본질에의 집중’이었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통해 풍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 질문과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DX부문장인 한중회 부회장과 DS 부문 메모리사업부장 이정배 사장이 경영현황에 설명하는 것은 물론, 컨퍼런스 킴을 연상케 할 만큼 사업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주주 질문도 날카로웠다. 애플페이 대응과 로봇 사업 전략, 반도체 시장 전망과 인력 확보 방안을 묻기도 했다. 일부 주주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한중회 부회장은 사정상 자세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이해를 구하며 자세히 확인 후 따로 설명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 ESG 노력 공감대

삼성전자 최신 제품을 체험해보고 E

SG 경영 노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주총장 곳곳에서 ‘인증샷’을 찍는 MZ세대 주주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입구에는 ‘지속가능한 일상’이라는 포토존을 설치했다. 갤럭시 S23 포토부스를 통해 갤럭시 S23 울트라로 사진을 촬영하고 카메라 기능을 체험할 수도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액세서리인 ‘삼성 에코 프렌즈’ 팝업스토어도 선보였다.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고 액세서리를 통해 개인 취향을 표현하는 MZ세대의 성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에코 프렌즈는 국내에 지난달 처음 공개됐다. 주주들은 갤럭시 S23 시리즈, 갤럭시 워치5, 더 프리스타일 등 삼성 제품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는 액세서리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아울러 ESG 전시 윌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갤럭시 S23, 초저전력 반도체 등 친환경 기술 ▲삼성청년SW아카데미, 삼성희망디딤돌, 스마트 공장 등 CSR 활동을 주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SK그룹이 10년간 지원한 ‘사회적기업가’

SE인재 153명 배출… 144개 창업, 1500명 고용창출

KAIST SE MBA 10주년

최태원 회장의 인재양성 철학 결실
SK, 사회성과인센티브 31억 지원

SK그룹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한 KAIST SE(사회적기업가)가 결실을 맺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제안과 SK 지원으로 지난 2013년 3월 세계 최초의 사회적기업가 양성 석사과정으로 출범한 KAIST SE(사회적기업가) MBA가 10주년을 맞았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배출된 졸업생들이 창업한 SE(사회적기업 소셜벤처)의 총 고용 인원이 1000명을 훌쩍 넘긴 데다, 스타트업 SE가 잇따라 탄생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 위커힐호텔에서 열린 Impact MBA(옛 SE MBA) 졸업생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SK수펙스협의회

15일 SK그룹과 KAIST에 따르면 2022년말까지 지난 10년간 SE MBA 졸업생은 총 153명이 배출됐고, 이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업사이클링 ▲탄소저감 ▲친환경 패션·식품 ▲헬스케어 ▲지역재생 ▲청년 금융 등 환경 및 사

회혁신 분야에서 창업한 SE가 모두 144개로 나타났다.

SK가 이 중 60개 SE의 사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2022년말 현재 이들 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87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44개 SE의 전체 고용은

1500명 선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19년 평균 1억7500만원 수준이던 기업 당 연매출은 3년만인 2022년 7억원 수준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졸업생이 창업한 전체 SE는 지난해까지 누적 168건, 총 800억원이 넘는 외부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기업가 인재양성 철학이 만든 결실로 관련연계는 평가한다.

최 회장은 지난 2012년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기존 영리기업들이 해결하는 데는 한계에 다달았다”면서 “과거 벤처 붐을 일으켰던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이 사회적기업 형태로 일어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SE MBA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전자

UAE 두바이서 신제품 쇼케이스

LG전자가 중동·아프리카에도 ‘F.U.N’ 경험 확대에 나선다.

LG전자는 14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지역 밀착형 신제품 발표행사 ‘LG 쇼케이스’를 열었다.

LG 쇼케이스는 혁신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만에 다시 열렸다.

올해 참가자는 76개 국가에서 400여명에 달한다. 4년 전 190여명에 2배 이상 늘어나며 LG전자 가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LG전자는 총 725㎡ 전시존을 마련하고 F·U·N 고객경험을 전달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과 솔루션을 대거 선보였다.

생활가전에서는 ▲초(超)프리미엄 LG 시그니처(LG SIGNATURE) 2세대를 필두로 ▲터치만으로 색상과 분위기를 바꾸는 무드업 냉장고 ▲원바디 세탁건조기 위시타워 ▲액자형 에어컨 아트콜 갤러리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퓨리케어 에어로파니처 ▲빌트인 주방가전 라인업 등을 소개했다.

올레드를 포함한 TV 라인업으로는 ▲전원 외 모든 연결선을 없애 설치 공간의 자유로움을 높여주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을 비롯해 ▲더 밝고 선명한 화질을 내는 2023년형 LG 올레드 에보(OLED evo)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LG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무선 이동식 LG 스탠바이미 등 혁신 스크린 제품들이 높은 관심을 모았다.

/김재용 기자 juk@

‘AS 강화’ 르노코리아, 하이브리드 시장서 주목

전국 412곳 AS 네트워크 갖춰
하이브리드 정비 206곳 가능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충전 등의 불편함으로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복잡한 소비자들은 AS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이브리드 자동

차 AS에 발빠르게 대응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XM3 E-Tech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기 전부터 AS 부문에서 인적, 물적으로 대비했다. 전국 412곳인 AS 네트워크 중 하이브리드 정비가 가능한 곳은 206곳까지 확대했다. 르노코리아는 내부적으로 일반 정비가 가능한 곳은 블루레벨 정비소, 고전압 시스템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오렌지레벨 정비소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르노코리아의 오렌지레벨 정비소가 206곳이다.

르노코리아가 하이브리드 정비소를 최대한 늘린 이유는 차가 많이 팔릴 수

록 소비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정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단순히 차만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를 판 이후에도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르노코리아의 의지이다.

단순히 수적으로 정비소 개수만 늘린 것이 아니다. 오렌지레벨 정비소에는 하이브리드 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 자체적으로 교육한 전문가이다.

르노코리아는 모기업인 르노그룹이 만든 정비사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COTECH(코테크)은 세 단계로 구



2023년형 XM3 E-Tech 하이브리드

분해 교육된다. 엔진기초분해 조립과 전기기초, 새시 부품, 제동장치 유지보수 등을 배울 수 있다. EM은 ‘Electro Mechanic’의 약자로 전장 장치에 대해 주로 교육받는다. 가솔린과 디젤 엔진 제어를 비롯해 전기 파트(센서, 통신, 충전), 전장(도어 스마트카드 등), 제동 시스템, 에어백 시스템 등이 과정에 포함돼 있다.

/양성운 기자 ysw@

